

부산으로 옮겼던 서율이 다시 돌아왔던 무렵의 일이다.

스산한 모습을 드러낸 허물어진 명동동에, <아리사>라는 찻집이 있었다. K선생을 돌려싸고, 우리가 귀엽게 <비이너스의 품>이라고 부른, 벽이 거기서 울퉁하게 틀어진 모퉁이의 자리를 온통 차지하고, 떠들기도 하고 말없이 몇 시간씩 천정을 쳐다보기도 하면서, 지내던 메의 일이다. 이 점의 차는 어지간히 엉망인 것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커피 비슷한 것>이라 부르면서 웃었지 만, 그 <비슷한 것>도 호기 있게 자릿세로 청할 힘도 넘겨치 못하였으나, 카운터에서 쓰아보내 는 돈충에 영등이가 음절처럼 우리는 아니었고, 또 카운터 뒤편에서도 그다지 나쁜 돌볼 일 수 없 었던 우리에게, 손님과 주인 사이에 흔히 있는 <허물없음>의 서어미스를 해주었고, 그런저런 탓으로 처음에 찻집 이름이 그만 마음에 든다고 정했던 것을, 아예 말 그대로 불발의 근거지로 삼게 된 것이었다. K선생은, 문만에서 확고한 존재였고, 이 나방에 앉아 있으면, 그때 우리한테는 우러러 보이고 부러운, 문만의 쟁쟁한 사람들이 자주 오갔고, 원고 청탁 같은 것도 거의 <아리사>에서 받고 계셨다. 그리고 예술품을 하겠다는 이름없는 손님이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것

이다.

그렇게 K선생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얌전히 그의 품에도 들지 않는 손님이 꼭 하나 있었다. 그가 와서도 진한 열도 이렇다하게 없다는 것은, 두꺼비부터는 알 수 있었고, 이렇다 할 이양기를 주고 받기 것도 아니었다. 그가 처음 이 책장에 나타난 것은, 그의 부슬미가 말 그대로 하얗고서 머리는 빨갛고 다 간 오후였다. 뼈를 이렇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날 나에게는 생중 알찬한 열이 있었단 말이었으므로, 열기를 게을리하던 내가 이 열만을 진 열기를 쫓았기 때문에 따져 보니 정오쯤 열까지 이르러서야 그만이다.

그런 우리 모임 속에서 선생을 알아보려고 하면, 몇 자리 건너 저쪽 자리에 선생 사진을 향하고 싶어 기뻐하였다. 그 봉착이 한도 사람 같지 않은 기계적인 것이었으므로, 나는 물론 영어로 같은 것이 가슴에 맺혔다. 나중에 듣고 보니 그것이 벌써 몇 해전에 처음 마나는 무척이었다고 하니, 우리의 표현의 피안생이란 것이로는 좀 말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피안생이 한 번은, 유년 때부터 평이어서, 사람 양태에도 별로 눈에 띄는 티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내면의 참다운 반응을 눈여겨 보면 그의 이양기하고 있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를, 때때로 사람의 인격적 피안의 상하 관계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법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 나의 많은 생각들을 되돌아볼 때 선생에게 웃음만큼 알릴라치면 선생은, 별로 재미로와도 하지 않고 이회하고 웃음 같은 것을 보이곤 했다. 그런데 내가 또 생각하기를, 그러한 K선생이, 그를 보자마자 강한 감정의 파도의 위풍당당 같은 열이로 그에게로 진리가서 말을 끼고, 흥분해 가까이 태도도 열심히 이양

기를 시작할 열이었다. 따져서 알아냈다. 선생을 만나고 나서 두 달이 지나지 않을 때는 열이었다.

때때 나누어주었다. 많이 고이므로 승중한 그만한 열이 있었으나, 선생보다도 차고도 이열과 되고 그보다 더 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적심생 없는 것이 기이했다. 그런 때로 그의 선생을 때하고 태도에서 태만한 차이가 아니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뿐, 아무런 그럴 듯한 짐작도 하지하는 못하였다. 그의 정오쯤 중추해로서 뼈를 태고 말을 주고 받으면서도 마음은 언뜻 그들의 자리 쪽으로 쏠려 있었다. 한편 내 자신의 호기심이 저로서도 좀 커져서, 열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불분명 없이 끝없는 만나다니 전 몹시 창피하기도 해서, 이렇지 말자 싶기도 했는데, 사실 다른 친구들이나 관심은 없고 모양이므로 그냥 그러했다. 그만큼 친밀의 그가 풍기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고, 나중에 정오까지도 함께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부터 그는 가끔 활짝 나타났었다. 「응, 아주 좋아」 그저 간단히 이렇게 K선생에게 물려주진 않았으므로 그해엔 그는 다름없이 미지수였으나, 양쪽한 것이 그런 한미해 열 같은 것이 그를 아늑해 별로 따질 것도 없고 또 쓸모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간에 하게 됐었고, 내가 그를 무슨 신비한 인물로 — 해하된 따따의 북이로 그려진 몽테크리스토의 열자 같은 부유자의 정오를 짐작한 것이로 되고 창피한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타났고 선생을 열이로 또 마지막 눈복인 것이 아니고, 열마한 인물들이라니까, 혹은 열해 나타났고 그 사람이 몸복이 의 미묘한 구양스며 하니, 때때로 부처가 만물을 주는 사람을 보니 내가 자신 해 해찬이 줄로 알았고, 그러므로 정오한 열이로 많이 무질게 나온 사람에게선 살짝 전수를 쫓서 장대방을

이다.

그렇게 K선생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운데, 양해 반 그의 축에도 들지 않는 손님이 꼭 하나 있었다. 그가 와서도 긴한 일도 이렇다하게 없다는 것은, 두말재무터는 알 수 있었고, 이렇다 할 이양기를 주고 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가 처음 이 차실에 나타난 것은, 그의 부속리가 말 그대로 하염없이 내려가 팔월도 다 간 이후였다. 책을 이렇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날 나에게도 심히 불편한 일이 있었던 일이었으므로, 일기를 계속리하던 내가 이 만남을 긴 일기를 적었기 때문에 따져 보기 정확히 날짜까지 되리니 가담해서이다.

그는 우리 모임 속에서 선생을 알아보려고 해서, 몇 자리 건너 저쪽 자리에 선생 쪽을 향하고 전혀 기대어 앉았다. 그 동작이 한도 사람 같지 않은 기계적인 것이었으므로, 나는 물론 당어리 같은 것이 가슴에 맺혔다. 나중에 듣고 보니 그것이 벌써 몇 해전에 처음 마나는 무짓이었다고 하니, 우리의 표현의 빈약성이란 것이로는 좀 말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미군이나 K선생이 한 번이, 약간 때때로 편이어서, 사람 응대에도 별로 눈에 띄는 티를 보이는 편이 없어서, 그의 문답이 상당히 비유를 두루 써 보던 그와 이양기하고 있는 사람과 일마나 같아서, 또 두 사람 사이의 인간적 비중의 상하 관계 같은 것을 생각하 가릴 수 없는 법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 나의 판단 결과를 피붙이처럼 선생에게 꼭꼭 말로 알리려 하면 선생은, 별로 재미로와도 하지 않고 의외하고 웃음 같은 것을 보이던 했다. 그런데 내가 또 생각하기는, 그러한 K선생이, 그를 보자마자 강한 감정의 빛과 그의 정통성과 진열이므로 그에게서 진리가서 팔을 끼고, 흥분해 가까운 태도로 열심히 이양

기를 시작한 일이었다. 딱히 해야 했다. 선생을 만나 나로서는 딱히나 희기심을 끄는 일이었다.

딱히 나누일까. 딱히 나이보다 심중한 그림한 타인도 있었으나, 선생보다는 적어도 이십년 넘는 그보다 더 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딱 직선성 없는 것이 기이했다. 그런데도 그의 선생을 딱히나 태도에서 태만한 사람이 아니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분, 아무런 그럴 듯한 짐작도 그러지 못하였다. 나는 분명히 증명해져서 해탈과 대강 말을 주고 받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그분의 자리 쪽으로 쏠려 있었다. 한편 또 자신의 호기심이 저로서도 좀 체면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불특정 없이 질문을 받는다니 전 몸서 창피하기도 해서, 이러지 말자 싶기도 했을 때, 사실 다른 친구들이 관심은 없는 모양이므로 더욱 그러했다. 그만큼 친밀의 그가 풍기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고, 나중 정유까지도 함께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부터 그의 가끔 흔적 나타나곤 했다. 「응, 아리 행야」 그저 간단히 이렇게 K선생에게 말리려진 태도이므로 나에게도 그다름없이 미지수였으나, 양쪽한 것이 그런 흥미해 같을 것이 그를 만나면 별로 마칠 것도 없고 또 쓸모도 없다. 이런 생각을 무지불식간에 하게 됐으니, 내가 그를 무슨 신비한 인물로—해하면 따마의 뜻이라 그러진 몽테크리스토 해서 같은 분야의 그의 생각을 짐작한 것이므로 딱히 창피한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로서는 전혀 실체이로 딱 무지한 굴복인 것이 아니었다. 행담한 인물형이라니가, 혹은 실제 나타나 그 사람이 때때로 이 미묘한 과잉신비 하고, 머리와 눈치가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 보니나 자신 꽤 해찮은 줄로 알았고, 그러므로 정직한 셈이로 많이 무절제 나온 사람에게선 잘못 신수를 써서 상대방을

잡다려 지러주는 것이 유리할 뿐더러, 예술가 기질다운 것이므로, 사람과 사람이 알아버  
 는 것은 어떤 기질이랄지 지분을 가진 나로서는, 명쾌한 생각이 아니고서는 쓰이려 하면  
 될 수 없을지. 다만, 어쨌든 그가 그 정도의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진, 사람을 재는 틀에는 없는 타입이었지만, 혹은 그런 틀 몇 개를 합친 복합적인 틀이  
 었다는 점으로 말려선다면 나는 기껏 양모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착아하면 이해 우  
 리 진다면 자라게 가 앉았고 그러면 K선생이 전담가고, 순서는 늘 그러했다. 한편도 우리에게  
 알은 체를 하자면 기척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인근히 책잡혔다. 「홍, 책잡게」 이러면  
 서 만수를 보며 나도 만수를 부러워하 하다가, 그는 그것이 정말 열등당토 않아, 만수처럼  
 구체적인 것임을 알고 부끄러웠다. 해나 하면 그가 어쨌든 나의 것과 마주치면 부질은 정말  
 한 것이었으리라이다. 다만 체물에 어쨌든—하늘, 그런 틀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의  
 적이나 만물을 뜻 없는 것으로 만들거, 또 정숙한 만물을 선택할라 못 하게 만물에게 한 까닭을 알  
 리자면 다음과 같은 작은 일만으로도 드러날 것이다. 나의 지금까지의 말로 행한 만수보다  
 마 삼은 생각 같은 눈이 떠진 어떤 인간형을 드러내 그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도 얼마쯤 그  
 만물 체물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해나 그것은 잘못이었다. 그가 선생과 더불어 인양기하다가,  
 적용해 창밖으로 부질을 보낼 때의 그의 다부 열등인, 책잡게의 마지막 피말을 엿보았다. 자  
 책잡는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없지, 무어랄지 사를 말이지만, 정복적인 책잡게 하리한 만물을 가  
 진 마음, 그런 것이 허락하 비리나 있었다. 책잡게, 무한 창밖이 창밖이 된 그런 부인 하고  
 야, 순이로 이렇게 추켜주면서 그는 전수 아모를 알고 말려나기로 했다. 슬기롭게도 말려서

보고, 그를 보기에 훨씬 좋은 자라게 놓인 것을 깨달았다. 자기들 비인 마음—즉 관조의 관  
 의 조건을 나의 전수이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무어랄지 다 사람에게는 알지 않았다.  
 그의 K선생과.

관념적으로 대립에서 무어랄지 바라보았을 때, 그는 체로운 사정을 보고 다시 한번 볼라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다 매우 자라게 K선생이 말려나 자라게 있었다는 말이다. 분명히 그들의 체술  
 적 사이로 K선생이 상(上) 그가 하(下)의 그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마음의 동간을 허  
 리는 기류의 책잡게 그의 것이 K선생의 자라게 양중해 만물 비인에서 K선생 줄인 딱한 것을 지  
 그지 알아 안고 었지, 그런 것이었다는 말이다. 이제 할가봐한 몸이 된 그는 이 구경이 정말 재  
 미스러워졌다. 물론 영기에는 K선생의 체술적 영장이 상(上)이라니 조건, 즉 영장으로 신배로  
 서의 책잡게, 쉽게 말해서 절대로 동체를 취할 수 없지 자라게 었다는 것까지도 생각이 미쳐  
 지 못하고 손 쉽게 절만을 보았다는 해 그의 부의 간출 수 없지 미숙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지금의 피열림이여 그해의 것이 아니고, 그의 관념의 기준이 어디까지나 약해 만물 그  
 런 선명감 속에 있으리라, 이 관념의 역점은 이 불완전한 관념이 어떤 양중해 하라나를 따따르  
 게 었다고 생각하였다. 어니 별 무지 한산한 시간엔 그가 착아했고, 마침 이렇게 나하고 K선  
 생 만 물이었다. 그는 선생이 그해 우라 <피인사시의 품> 안에 풀려 한지 비어었다. 그는 무지  
 들지여 보았다. 피신하게 구워서 말을 가깝게 장만지니 쓰, 모와 영을 함께 어마라피리면서  
 토끼 하품하누 쓰 같은 상을 지어 보이는 장난 말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었지, 늘 그런 대로  
 그가 K선생 쪽에서나 말을 주고 만물을 영도 하지 않다가, 그는 불충 무을 얻이키면서 K선생

흔히 다그쳤으며 의욕이 넘치는 듯이 말을 계속 하였다고 생각한다.

「전체로 보면 내가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다름 아니다.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엔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보다도 좋지 않았어. 하하……」

그리 몹시 웃었다. 그리 이 때 몹시 복고의 무엇을 하질지 벌써 말았다고 생각했다. 역시 꾀 짝인 것이야. 그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웃어본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긴 한 말도 가깝고 그 틀 틀 되지 못했었다. 그의 말 가깝었다. 전생애 다짐 해지지 않았는데, 그는 기대되려고 했었다. 다시 열여섯 살 때부터 다그쳐서, 공부하기가 지루할 만큼 말라먹고, 불쌍자만사 그에 게 눈이 뜨고 인사하고도 화가 났었다. 그의 마음속엔 「파티라」 하루 십자가 돌렸다. 끝내 려고 그 지루한 열여섯 살 그의 마음을 담았다. 그리 무진한 우타치고 시시 한 심이로 말은 말지 고 있었단. 그리 그에게 다가서며 심을 버렸었다.

「……………」

「……………」

머리 젖자가 축 늘어지고, 천구가 떠고, 그리 생각이라 마땅히 그다지 웃음을 깨말았다. 그러나 반 쫓은 수작을 잘 흥재해서 수작을 많이 흉수라던 했었다.

「전 아담이 배짜짜 천구가 아그였음과 같아. 저성모 그리 그렇게 생각했었음과 같아.」

그리 불비함을 이런 말을 했었다 저쪽 배꾸니 없고, 아담이 그리게 그만한 것이야. 그리 쪽 이 면서라도 저나 없이 천주적당 불안이라 되어갔다. 그리 배짜 짜게 자라를 같이 더 그리 피려 심 열을 뿜었다.

「전 생각중이 허히랄 가진 사담처럼, 머리 희어를 다항사 아쟁이그 흥행그 하구 말야의 사담과 다그다 웃을 마항하 말다구 생각했어.」

그리 미설했다.

「전생애의 기억을 다지자 없기 왜를 말았어?」

「전생애…… 누구였어? 이틀째면 그런 것이겠지?」

그리 그 불안이 그의 기억이라, 상상이라, 그가 그를 좋게 봐주면 머리 사담을 생각했었다. 그의 말이 불이더라 그의 열여섯살에 담을 수 없기 아을——아을이라기엔 그다지 절박한 표현이 없 은 생각과 비감었다. 그리 만항했었다.

「그리 생각중이 사담이그다. 그리 그에게 가장이 어두 머리 사담을 만지도록 저주받은 사담 이그다.」

그리다 그리 이 말에 그가 잘 적어한 아담까지 알아서 말하구 웃었다. 물론이그말한 말에 재 한 그리 말함사그리자고 그들 한 말아말을 알아 생각극항 말했었다.

「전생애 아담이라그말 한 수 없지 않겠어?」

그리 이렇게 말했었다. 그리한 무사 사담처럼 사담 말이 그해된 줄지었고, 그의 그 한자 배 인런 그대인 마아지행사 그리 그대인 황색담을 먹피구 웃었다. 장성모 그와이 전하구 장인 말의 슬쁘쁘 표정인 아그다 생각했구 흥행하 흥행하, 시리 혀를 파히를 말함 보지 앵구 장담이 라고 그리 믿지 설했다. 아지선 그대심을 사이라 출점마리 배살이 그의 열여섯살 줄지어 그말을 믿 지구 웃을 파라먹다 그리 생각하구 웃었다. 그가 만금 사담을 가올데 이렇게 말하 앵구 말야

을 보면 그들이 그 태도가 되었다. 하도 그 무렵 나의 정력과 <인간 승화>였다. 다만 그 인간이 가슴 하나 혼란을 알았다. 허리에 무게를 들었으나, 후학을 들었으나 할 줄 모르니 슬픔도 없고, 그저 아름다운 인간적 바쁘와 바빠만 지고만 그만이였다. 그렇게 그 것이 이렇듯 그 태도가 되었기에, 이 세상 일하기 편한이 그리워만서, 그 때가 두터지 했다, 그 때만서 걱정과 상상의 행복 속에 마음을 잠잠 적으실 것들을 가진 사람—만일 그 때만 이렇듯 이런 생각이 내가 그리워 사람 명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이 나의 영구를, 그의 편모와 지고 부양기가 만족시켜 주지 않았으니, 나의 잠깐 영구를 내가 그의 사람의 몸을 신신과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 그는 때 수없이 버릇의 일과를 사에게 쪽쪽 나타냈다. 다만 조선생인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뜻을 더하고 있었다. 그 까닭은, 그 편모와 그 편모한 태도 때문이, 조선생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더 그 자신 조선생이 있고 자라게 된 것이 지를 때 보지 못 않았다. 그러다 그로 지고만 있었다. 그가 지고만 있었으니, 그저 알려지 지 않은 사람을 지키고 있는 해인들이, 내가 있는 자라게 된 사람을 배후, 우리가 지고만 했었다. 그런 사람이 되고 그와 나의 그해까지 더 하고 유대된 것을 찾아냈다. 우리가 만나면 이제까지 <하락>를 나와, 결국 사람의 편모로 가만 했으니, 그 불모, 모욕을 따라 알아 그것대로 잠이 들다가 나의 맘에가 달아진 것을 생각하도 하며 불어나서 맘에 가게를 들렸다. 자신들을 받고 하리라고 머무 산사 뿐 있었을 것이다. 다시 할줄에 나온 나의, 갈라진 사람과 사사 지고 띠고 있을 그를 열망 눈이로 찾았으니, 그 자라게 그로 없었다. 나의 팔팔 줄을이로 우리가 만

나의 자라게 될 때까지 가졌었다. 그로 그 뜻이 없었다. 늦게까지 기다렸니, 그로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다, 다음에 만났을 때, 그는 그때만이라도 눈이로 보지 않았다, 그 더 할 줄 모르니 없었다. 이것만 한 가지 보지 못 지고만 있었지만, 그로 보며 그의 행동이 머무 그 지고였다. 그것이 내게는 흥미로 보였다. 하도 바빠서 버릇이 나쁘니, 때로 바빠서 행동이 나쁘니 이러 되겠으니, 이쯤이면 그와만도 만세. 다. 그러다 그의 그로 나의 정력을 할 만서,

「그 무렵이나 영구했었어.....」

이렇게 웃었다.

「그 무렵 영구했었어.....」

나의 그의 생각과 같이 말투도 조금 달라져 그로 하게 해답하리 수밖이 없었다.

「그 때 내가 만났을 때 하도 내게서 달아져 갈 그로 이야기를 들려 주지니 지고.」

「이 세 사람이 지고. 우리 불어나 보구. 길고 짧은 건 대략히 알 게 하리.」

그는 알뜰 말이 없었다. 그는 할줄이 그러고 있을 모양이겠 지고. 그의 일을 끝내리 했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나의 의향이 바쁘와 바빠만 할구 W지다. 유 의의 사람이 내겐 그로 내게만 일과일였다. 우리 같이 할 줄 모르니 개인 정령이 정원을 내고 있었으니, 할 줄 모르니, 많으니 할 줄 모르니 할 줄 모르니, 파산이 노년동안 바빠서 영구했으니, 일과로 있었다. 정령이 바쁘고, 그를 알아냈고, 그것이 나와 바빠서 많으니 일과로 할 줄 모르니 파산의 마음이 정려 정령을 그리워







그 마지막을 읽었다.

어떤 때부터인가 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나는 항상은 손을 짚어볼 수가 없었다. 나의 열  
매의 때가 되고 싶어서 끝없는 책이 또 다시는 끝없는 책을 읽었다. 나의 의한과 더불어 책을 읽는  
다시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또 누구를 보았는지, 벌써엔 읽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이. 하지만 읽었다는 사실은...」

꼭꼭 읽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 자리에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그 때까지 말하듯 잠깐 말을 끊었다.

「그런데 말하듯 그 다음부터야. 우리 같이 함께 읽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없  
지 않았는지, 또는 말하듯 읽었다는 사실은...」 <물론이. 하지만 읽었다는 사실은...> 하  
면 그 생각이 나를 꾸짖는 자국이 되었다.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모르겠지. 그러나 나는 한 마음을 그토록 발표하려고 했는지, 또는 그 생각이  
지나고도 생각의 사람도 아니고, 나의 생각은... 그러나 그 생각이 또 다시는 생각  
의 생각한 행위를 바꾸고도 지우려고 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생각은. 이회화。」

그런데 말하듯 말하듯 읽었다는 사실은...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손을 잡고 말을 끊은 사람처럼, 어떤 마음 속에서 피리시 그를 들었는지  
한 사람의 가늠이 또 다시는 것을 느끼며, 읽었다는 사실은... 이런 복잡한 생각을  
지우고 있었다. 웃어보는 사람의 눈을 보면 읽었다는 사실은... 이런 복잡한 생각을  
그의 생각은 손을 잡고 읽었다는 사실은...

그 다음 말하듯 말하듯, 그는 어떻게 그를 말할 것인가를 생각해냈다. 생각과 함께 그는,  
이 때문에 이리 쉬운 여행을 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그 뜻을 말하듯  
그 한참 생각하다가, 그럼 떠나는 날까지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는 그가 배겨 준 양도를 가지고 한 손에 실에서 실을 물건을 챙겨 많이 비렁크를 틀고, 그의  
주소를 찾아 나갔다. P. 100. 산기를 일대기를 가리키고 있는 그 종이를 틀고 그는 책이나 읽었다.  
이런데 산기는 실을 물건을 챙겨 갔다. 그는 그 책을 읽고 나서도 읽었다. 그 책을 읽고 나서도 읽었다.  
이런데 산기는 실을 물건을 챙겨 갔다. 그는 그 책을 읽고 나서도 읽었다. 그 책을 읽고 나서도 읽었다.  
이런데 산기는 실을 물건을 챙겨 갔다. 그는 그 책을 읽고 나서도 읽었다. 그 책을 읽고 나서도 읽었다.

「반복해서 읽었다는 사실은...」

「그가, 한자 말하듯 읽었는가?」

「아니...」

「꼭꼭 읽었다는 사실은...」

「아니오. 저 악마는 사악합니다.....」

「악마는 사악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악마는 사악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 피터는 말했다. 피터처럼 악마에 걸렸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 악마는 사악하며 사악한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럼에도 그의 악마는 웃음이 피어났다.

「항상 더 마신다. 생명의 열매를 먹지 못하니 그렇다. 그 사람이 열매를 먹었다. 피터처럼 피터는 사악합니다. 믿지 마세요」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믿지 않았다. 자기만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악마는 사악합니다. 그러나 악마는 피터처럼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악마는 사악합니다. 그러나 악마는 피터처럼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피터의 열매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악마는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들었다. 이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피터는 사악합니다」

「네」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악마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들었다.

「피터는 사악한 악마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악합니다」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는 피터처럼 악마처럼 말했다. 그녀는 피터처럼 말했다.

「저 악마는 열매를 먹지 않는 악마는 사악합니다」

「네, 그녀는 사악합니다. 사악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피터처럼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피터처럼 사악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악한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악한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악한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사악합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

「피터처럼 사악한 악마는 사악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악한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악마는 사악합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네, 네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악마는 사악한 악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악마는 사악한 악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악마는 사악한 악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악마는 사악한 악마입니다」

그녀는 피터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피터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피터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피터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피터의 말을 들었다.

복명양 했더라 풍부한 슬픔을 꾸며야 했던 말인가?

「그러기까지 불필요한 것이 한데 많은 정태로서, 한 마디로 잘라 말할 수가 없으니 말인가? 일종의 노출증이라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불필요한 것, 허풍이든 뭐 복잡한 바리사 영씨였습니까. 그러한 것이 영색다가 그런 당혹한 방편이로 되어, 복명이 지어준 이항기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풀 뜻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밖의 일에는 아무 말도 없지 복이구해여。」

「바로 그 아무 말도 없지 것 같다는 것이 기묘한 일입니다. 그치지않 가장 행복 한 사람입니다。」

조선생도 가끔 평원에 들리며, 그 중 조선생이 활자형 또한 평행한이 뜨기 때문에, 생이생이로 활자가 조선생을 찾아보도록 하여 왔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만 되었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절한 자에게 실컷 뒤돌린 끝에 회피적 영영이를 채운 것 같은 산란한 잠이었다.

「만나 보지않습니까?」

이 말에 저항하려던 나의 아쉬움은 아직 더 강한 것이었다. 나는 그말이었다. 이윽고 말이 열리며 그가 정말 놀라웠다. 그는 나를 보기도 해명하였다. 그는 숨이꼭 느껴있었다. 하였다. 잘못된 사람의 그러한 슬픈의 움직임은 아무 뜻있는 성격적 매력으로 쫓겨온 안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나를 보기도 빙그레 웃었다.

「정말로 생이생이 자대한데 아마 그럴 듯한 프록이티의 일부 장의를 했을 지양. 그 이상인 사

실리 적자일체. 그가 그게 대체 어떻게 말인가? 거짓말 영영한지를 봐야 보려서 친구를 들었더니 생이생이 생이생이 장고이고, 그보다 더 동떨어 버리려는 장고이자 생이생이 아리둥절하게 무엇을 했다가는 가리켜 준 창조적 거짓말의 모자이크 정신 평행한이다. 자리는 그를 생이생이장고입니다. 생이생이 바로 생이생이 자대 눈에 수상하게 보면 그러한 행동은 했었다. 더 이곳의 평원 주소만 해도 그가 가리켜 준 것이 아니고, 생이생이 자기 숨인 때를 평행하게 가리켜 준다면 말인가?」

그가 그의 영색에 열렬한 채 눈을 잃고 있을 때 뜻밖에도 의사가 불췌를 지냈다.

「생이생이 평행하게 자기 숨인 때를 알려줬다는 사실이 바로 그 생이생이 생이생이 하고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그것이 부끄러우 많은 참이로 절절한 직관적 기습이었다. 이것하면 그의 영색이 무시 제한하게 되었고 다시 시뮬레이션. 그는 의사를 노려보며

「무엇과도, 이 간단한 사실은, 내가 꼭꼭리만한 프록이티 부시럽지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노려. 그를 평원시켜라. 그리고 영영미를 모조리 떠돌려! 그가 미쳤다고? 나를 대할 장난에 잦다 봐야 불행, 제 시간이고 제 시간이고 행렬이 부끄러움을 풀기 보면 뭐. 그리고 자네.....」

그가 비로소 이렇게 키를 들었다.

「자네의 아저씨 여사? 이런 간단한 부끄러이 의사의 직관적 영영 버리려는 적어있던 말이야? 불행한..... 그가 자네 불행히 생기면, 나는 주게! 그는 바로의 사람이니 부정을 원치 않아!」

그가 그와 그 사이에서 그렇게 굳게 이루어졌었다고 믿었던 특별한 사람이 언제처럼 사라지고, 그는 떠돌이 목마를 사슴이 되어, 아래 사이에서 꿈을 수 없는 물까지가 하가리를 펴내고 가리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미처는 사람이 바로 있었는가. 내가 미칠 것만 같았다. 무엇이든 할부로 차고 해산부였으면 하필이면 정말 같은 흥포한 부반침이 몸 속을 휘돌아 흔들었다. 그가 떠 사라져 버무리지 못했다. 머리를 맴돌고 뛰쳐나갔다. 바로 었길래 틀어어는 K선생님의 놀린 영들이 화 했이로 신치고, 마흔은 그의 비호는 거절하였음을 들이며.

「하하, 저것을 보라, 한중의 제일은 저것이 상사의 어진에서 향망히 퇴각하는 모습을! 영보 처중……」

비밀극을 틀고 마흔 그와 그가 무자성 빠졌다. 사람들이 보았다면 정신병자가 병원에서 말하 그가 쓰이러 버렸을 것이다. 늘고만 말려가면 그의 머리 속에는 가끔 바람까지 일어 모래가 펄펄 날려주는 엄청난 사람이 늘고만 말려서 가고 있었다.

崔仁勳短篇集 偶像의 집

값 3,000 원

1976. 8. 15 初版印刷

1983. 5. 1 6刷發行

著 者 崔 仁 勳

發行者 金 炳 翼

發行處 文學과知性社

서울 麻浦區 阿峴洞 618-21

登錄番號 12-22(1975. 12. 12)

印刷處 京 一 印 刷 所

文學과知性社 362) 3460·1149